



청소년 테마 소설

『불안의 주파수』

지은이 | 구병모 김진나 송미경 오문세 진형민 최상희 최영희
엮은이 | 유영진

문학동네 청소년 41

140*205*12 (무선)

220쪽

11,500원

2018-09-21

978-89-546-5288-9 03810

문학동네 ‘청소년 테마 소설’ 시리즈는 청소년의 삶을 맴도는 질문들, 그 하나하나를 화두로 삼아 우리 청소년문학을 이끌어 온 대표 작가들이 펼쳐 보이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묶어 왔다. 그간 <관계의 온도> <내일의 무게> <콤플렉스의 밀도> <존재의 아우성> <중독의 농도> 등 다섯 권의 테마 소설이 수많은 청소년 독자들과 공명하는 바 있다. 이번에는 ‘사랑’과 ‘불안’을 열췌말 삼은 두 권의 테마 소설이 청소년 독자들을 찾아간다.

“우리는 ‘문학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통해 어떤 해답이나 교훈을 주려 하지 말자, 다만 독자들이 스스로 어떤 질문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다짐과 바람은 이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영진(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 불안

마음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불안. 늘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마냥 부정적인 감정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 불안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불안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때때로 삶을 짓누르고 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구병모, 김진나, 송미경, 오문세, 진형민, 최상희, 최영희 등 <불안의 주파수>에 참여한 7인의 작가들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안의 맨 얼굴과 그저 막막하고 암담하기만 한 불안뿐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주는 불안의 풍경까지 포착하여 강렬하고 실험적인 서사로 풀어내었다. 각기 다른 주파수에 맞추어 송신되는 불안의 단조는, 제 몫의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독자들을 조심스럽게 토닥여 줄 것이다.

“불안은 제거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방식이자 인류를 발전시키고 자기완성을 이루게 한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은 더 이상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삶의 통제권을 쥐고 나아가려면 먼저 불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_유영진(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수록 작품 소개]

「헬멧」 _진형민

건당 삼천 원. 수수료 떼면 이천오백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오토바이로 미친 듯이 쏘면 은주와 나눌 커플링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민이 시작한 배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는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오토바이엔 사이드미러가 없고, 헬멧 쓰라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었냐고 밥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지겹도록 말하는 사람도 없다. 심지어 기름값, 밥값, 오토바이값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위태롭게 이어지는 종민의 질주.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

「단추인간 보고서」 _최영희

지유의 귀밑에 두 개의 똑딱단추가 일렬로 돌아났다. 단추 사이의 피부는 슬쩍 벌어져 있었다. 마치 두 단추를 뜯으면 투둑, 허물을 벗을 수 있을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기에 지유는 만만한 방과 후 영어 선생님 메건을 찾아간다. “기억해. 단추는 누가 뭐래도 네 거야.” 메건의 시시껄렁한 조언과 “뭐든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니 잠적하진 마.” 반 친구 김루의 구태의연한 조언을 뒤로하고, 마침내 지유는 결심한다. 단추를 푸는 최초의 ‘단추인간’이 되기로…….

「유리의 세계」 _구병모

언제부터 이 세계의 모든 땅이 유리 블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검은 흙과 용암이 내려다보이는 투명한 대지 위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안전감을 느끼며 살아 왔다. 도로의 유리 네 장이 느닷없이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퍼져 나가며 완전해 보였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유리 공방의 실력자 라로는 사건을 해결하려 애쓰던 중 공방의 어린 소년 문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거울 속에 있다」 _오문세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건 그냥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 잘생긴 나를 ‘엘프’라 부르며 모두가 찬양하는 거겠지. ‘트롤’이라 불리는 엄마 친구 아들의 삶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거울 너머 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호의적이기만 했던 세상이 악몽으로 변해 간다. 되찾아야만 한다. 거울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을,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어디에도 있는」 _최상희

인상적인 데라곤 없는 P시의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 부모님의 돌연한 귀농 결정 때문이다. 느닷없이 딸기 농사를 짓겠다니. 아빠의 말은 뜬구름을 잡는 듯 모호하기만 하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같이 쓰는 방은 마치 아무도 없는 듯 깔끔하고, 내가 남기는 흔적은 자꾸만 지워진다. 기숙학교에서, 단톡방에서 숫자로만 존재하던 친구들마저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춘다.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꺾여 나갈 때야 자세히 보이는 손톱처럼, 어디에나 있는 회색 추리닝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건 내가 아닐까?

「나딸_상실한 구역」_김진나

선름은 모랑 아줌마의 집에 산다. 모랑 아줌마는 무척 친절하지만, 집에 선름이 발 디딜 곳은 없다. 작은 인형에도 원산지가 적혀 있는데 선름에게는 원산지가 없다. 어느 날, 선름은 모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방문한 나딸의 교도소에서 기묘한 흥분과 갈망을 느낀다. 지도에도 없는, 세상의 끝과 같은 곳, 나딸. 그곳 출신이라는 죄수에게서 선름이 느낀 감정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선름은 자신의 전율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모랑 아줌마의 조카 주주와 만나기 시작한다.

「마법이 필요한 순간」_송미경

별다른 꿈도 의욕도 없이 수능을 준비하던 은희는 우연히 들어간 마술 모임에서 작은 위안을 찾는다. 일찌감치 학교를 마치고 바리스타로 일하는 조지는 마술처럼 쓸모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은희가 못마땅하기만 하다. 거리가 유난히 시끄럽던 어느 날, 은희가 ‘모든 시끄러운 것을 사라지게 하는’ 주문을 외우자 세계가 멈춰 버렸다. 오직 은희와, 고양이로 변한 조지만이 움직이는 채로 6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때,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 우리에게 마법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 차례 *****

「헬멧」_진형민
「단추인간 보고서」_최영희
「유리의 세계」_구병모
「거울 속에 있다」_오문세
「어디에도 있는」_최상희
「나딸_상실한 구역」_김진나
「마법이 필요한 순간」_송미경

***** 글쓴이 *****

구병모

2008년 『위저드 베이커리』로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로 오늘의작가상과 황순원신진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네 이웃의 식탁』 『파과』 『아가미』 『한 스푼의 시간』, 소설집 『빨간구두당』 등 출간.

김진나

2016년 『디다와 소풍 요정』으로 비룡소문학상, 2017년 『소년아, 나를 꺼내 줘』로 사계절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숲의 시간』 『도둑의 탄생』 등 출간.

송미경

2008년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웅진주니어문학상 수상. 『어떤 아이가』로 한국출판문화상, 『돌 씹어 먹는 아이』로 창원아동문학상 수상. 동화 『봄날의 꿈』 『복수의 여신』 『가정 통신문 소동』, 장편소설 『광인 수술 보고서』 등 출간.

오문세

2012년 『그치지 않는 비』로 제3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싸우는 소년』 등 출간.

진형민

2012년 『기호 3번 안석뽕』으로 창비좋은어린이책 수상. 동화 『사랑이 흑!』 『소리 질러, 운동장』 『꿀뚜기』 등 출간.

최상희

2011년 『그냥, 컬링』으로 비룡소블루픽션상, 2014년 『델 문도』로 사계절문학상 수상. 장편소설 『하니와 코코』 『칸트의 집』, 소설집 『바다, 소녀 혹은 키스』 등 출간.

최영희

2013년 『어린이와 문학』을 통해 등단. 2015년 『꽃 달고 살아남기』로 창비청소년문학상, 「안녕, 베타」로 제1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수상. 장편소설 『구달』, 소설집 『첫 키스는 엘프와』, 동화 『알렙이 알렙에게』 『인간만 골라골라 풀』 『슈퍼 깜장봉지』 등 출간.

******* 엮은이 *******

유영진

2005년 창비어린이 신인평론상 수상.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평론 부문 수혜. 평론집 『동화의 윤리—사라진 아이들을 찾아서』 『몸의 상상력과 동화』 출간.

담당: 곽수빈 (02-3144-3242) kwaksubin@munhak.com